

1. 마태복음 숲 읽기

- **복음서:** 당대의 전기, 행전, 어록이 결합된 이례적인 문학 장르
- **‘4개’의 복음서:** 구조, 어휘, 시간적 순서, 관점이 차이를 보이거나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인정
- **마태복음:** 초대교회 교부들이 가장 애용했던 복음서(풍성한 가르침이 체계적으로 전개)

■ 마태복음 숲 읽기

- 1) 예수님의 사역 준비: 1-4장(계보, 피신, 세례, 시험, 사역 시작)
 - 2) 천국 가르치기와 실천: **5-7장**(산상수훈)과 8-9장
 - 3) 천국과 사람들의 마음 가짐
 - **10-12장:** 따르는 제자들,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들
 - **13-18장:** 천국의 확장(비유), 수용과 거부, 천국(교회)의 속성(겸손과 용서)
 - 4) 천국에 대한 반응과 경고,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성취
 - 19-22장: 천국에 대한 거부 심화
 - **23-25장:** 천국 거부에 대한 보응: 화와 심판
 - 26-28장: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약속
- **굵게** 표시된 장은 어떤 의미일까요?(5-7, 10, 13, 18, 23-25장): 신약의 ‘모세 오경’
 - “이 말씀을 마치시매”(7:28), “열 두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11:1),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13:53), “이 말씀을 마치시고”(19:1),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26:1)
- 마태복음만의 첫 장과 끝 장의 조화
 - “임/마누/엘”(1:23) —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28:20)
- **생각/나눔을 위한 질문**
 - 1)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신앙 선배들의 노력이 ‘복음서’라는 독특한 문학 장르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려는 우리의 몸부림은 어떤 것입니까?
 - 2) 복음의 ‘순도’가 높아질수록(복 -> 희생/죽음) 공동체 구성원들의 본성이 더 명백히 드러난다는 점을 마태복음의 구조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결과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대로 사는 삶의 ‘순도’가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순도는 몇 퍼센트라 생각하십니까?

2. 예수님의 사역 준비

■ 1장: 예수님의 계보와 탄생

1) 이방/부정한 여인 4명이 포함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게네시스, 족보)(1-17절; cf. 갈 3:7,29)
- 다말/라합/룻/밧세바에 대한 두 가지 해석: “그럼에도”(nonetheless) 와 “때문에”(because)

2) 준비된 부모와 예수님 탄생(18-25절; cf. “임마누엘”, 23절)

-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19절; cf. 눅 1:38의 마리아,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 2장: 아기 예수님의 역경: 1장과 반전을 이루는 열악한 상황

1) 동방박사(둘 이상)의 경배, 헤롯이 저지른 만행, 베들레헴-애굽-나사렛 이동

2) 수시로 인용되는 구약 ‘말씀’(탄생(6절), 애굽 피신(15절), 만행(18절), 나사렛 정착(23절))

■ 3장: 세례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세례

1)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3절)

2) 예수님의 세례 현장에 모인 ‘삼위일체’ 하나님(16-17절)

■ 4장: 성령이 이끄신 ‘광야’ 시험, 갈릴리 사역의 시작

1) 3가지 시험(돌덩이, 성전 꼭대기, 지극히 높은 산)을 ‘말씀’만 의지하여 이기심

2)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4:17; cf. 세례요한의 메시지와 동일, 3:2)

3) 어부 넷을 제자로 부르심(18-22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 꼼꼼이 생각하기/함께 나누기

1)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갈 3:7,29),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게네시스)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 계보에 속한 사람에게겐, 어떤 과거든 ‘일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그럼에도) 과거는 없습니다. 지난 모든 일은 지금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때문에) 과거일 뿐입니다. 현재 역시 그리스도의 계보에 ‘꼭 필요했던 과거’로 나중에 기록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2) 마 1-4장은 예수님과 관련하여 일어난 모든 일을 말씀에 비추어 해석하고 있으며, 예수님도 세 번의 시험을 말씀을 의지하여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적용해서 이해하며, 말씀으로 이겨야 할 상황이 있다면/있었다면 간략히 나누어 보세요.

3. 천국 가르치기와 실천

* 1-4장 리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위해 필요했던 것

- 하나님의 오랜 구원 계획, 준비된 의로운 부모, 동방박사, 길을 예비하는 세례요한, 하나님과 성령
- 족보 상의 여인 4명, 살해 하려는 헤롯과 메시아의 도래를 모르는 백성, 나사렛 출신, 40일간의 금식과 사탄의 시험

■ 5-7장: 산상수훈 - 천국에 대한 가르침(천국 백성이 누리는 유익과 실천)

5장: 팔복(복의 기준 변화: 심령의 가난, 애통, 온유, 마음의 청결, 화평하게 하기 등), 서기관 보다 나은 의 6개의 반대명제(~ 들었으나;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원수)

6장: 3대 경건(구제, 기도, 금식)은 '은밀하게'(크립토), 두 주인 중 택일(하나님 vs. 재물)

7장: 타인 비판과 자아 성찰, "구하라/대접하라"(7-12절), 나무와 열매(실천의 중요성- "반석 위의 집")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7:29)

-> 천국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실천의 영역'이다(= 서기관 보다 나은 의)

■ 8-9장: 천국이 실천적인 영역임을 보여주심(치유와 부르심)

8장: 치유(나병환자,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의 장모 및 귀신 들린 자들), 부르심(한 서기관)

9장: 치유(중풍병자, 관리의 딸, 혈루증 여인, 두 맹인, 말 못하는 사람), 부르심(세관 마태), 금식 논쟁(14-17절, 천국 복음에 대한 거부 시작)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9:13; cf. 호 6:6)

■ 곰곰이 생각하기/함께 나누기

1) 내가 천국 시민으로서 누리고 있는 유익과 삶에서 자주 실천함으로써 열린 열매를 나누어 보세요.

2) 특히, 천국 시민으로서 (1) 하나님과 재물, (2) 자아 성찰과 타인 비판, (3) 긍휼(사람)과 제사(규칙)라는 택일 문제(때로는 우선순위 문제)를 실제 삶에서 지금껏 잘 풀어오고 계십니까? 가끔 어려워 보이거나 틀리는 문제가 있다면 몇 번 문제일까요?

4. 천국과 제자의 마음가짐(마 10장)

* 1-4장: 예수님의 사역 시작은 긍정/부정적인 요인 모두 필요(세례요한, 요셉, 헤롯, 사탄 등)

* 5-9장: 말로 가르치는 천국(5-7장)과 행동으로 가르치는 천국(8-9장)

- 5-7장: 천국 백성이 누리는 유익, 즉 복, 의, 참 경건, 재물의 위력, 타인 비판, 나무/열매의 의미를 새롭게 가르치심
- 8-9장: 공허에서 비롯된 치유 및 부르심을 통해 천국은 개념이 아닌 실천적인 나라임을 보여주심

■ 천국을 위해 제자를 부르심(10:1-4)

- 1) 제자는 주님의 부르심과 권능을 '받은' 자들이다(1절, 자원이나 개인 역량이 우선하지 않는다)
- 2) 최초 열 두 제자들의 명단(2-4절): 베드로~가롯 유다(순서 유의)

■ 천국의 확장을 위해 보냄 받은 제자의 길(10:5-39)

- 1) 보냄 받은 자는 부르신 자가 보내려는 곳에 집중한다(5-6절,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 2) 보냄 받은 자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부르신 자의 메시지이다
 -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7절; 4:17의 예수님의 메시지 참조)
- 3) 보냄 받은 자가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은 보내신 자이다(8-15절)
 -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가지지 말라'(전대에 금은동, 배낭, 두벌 옷, 신, 지팡이), '머물라/평안하기를 빌라',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 4) 보냄 받은 자는 부르신 자처럼 미움과 박해를 받는다(16-23절)
 -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22절)
- 5) 보냄 받은 자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다(24-33절)
 -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28절)
- 6) 천국의 확장은 '해산의 고통'(갈 4:19; 계 12:4 참조)을 통해 이루어진다(34-39절)
 - 검(34절), 불화(35절), 자기 십자가(38절), 자기 목숨(39절)

■ 천국의 확장을 위해 제자가 누리는 특권(40-42절)

-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40-42절)

■ 곰곰이 생각하기/함께 나누기

- 1) 우리는 주님의 주도적인 부르심과 권능을 '받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보냄 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은 지금 제자인 우리를 통해 천국으로 확장/변화되고 있습니까?
- 2) 제자의 길(5-39절)에서 언급된 내용 중 우리가 특별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5. 천국과 사람들의 부담(11-12장)

- * 1-4장: 예수님의 사역 시작은 긍정/부정적인 요인 모두 필요(세례요한, 요셉, 헤롯, 사탄 등)
- * 5-9장: 말로 가르치는 천국(5-7장)과 행동으로 가르치는 천국(8-9장)
- * 10장: 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 보내심(권능)을 받고, 보내신 예수님의 대리자(사신) 신분으로 천국 확장을 위해 해산의 고통을 감내하는 사람들이다.

■ 믿음이 의혹으로 바뀌어 고민하는 사람: 세례요한(1-6절)

1) 세례요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11:3)

2) 예수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11:6)

-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11:11)

■ 이후 11장 내용의 흐름

- 1)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비아제타이’) 침노하는(‘비아스타이’) 자는 빼앗느니라(11:12; cf. 눅 16:16)
- 2) 장터에 앉은 아이들 비유(16-19절: “피리를 불어도... 슬피 울어도...”)
- 3) 갈릴리를 향한 재앙 선언(20-24절; “화 있을진저 고라신아...벧새다야...가버나움아...”)
- 4) “웁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25-27절)
- 5)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28절)

■ 천국 복음에 대한 저항(12장)

1) 안식일 논쟁(1-21절): 밀 이삭 사건(1-8절)과 손 마른 자 치유(9-14절)

-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cf. 9:13,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2) 바알세불 논쟁(22-37절): 시각/청각 장애인 치유는 누구의 도움을 받은 치유인가?

3) 악한 세대를 향한 경고(38-45절): 나무-열매(33-37절), 요나의 표적(38-42절)

4) 새로운 가족 연대(46-50절): 천국에서는 가족이 ‘혈연’을 넘어 ‘신앙연’으로 묶임(“누가 내 어머니이며”, 48절)

■ 곰곰이 생각하기/함께 나누기

1) 천국 복음은 2천년 전 예수님이 선포할 때처럼 지금도 널리 환영 받지 못합니다. 믿었던 이들이 돌아서기도 하고, 아예 처음부터 복음을 일절 거부하는 등 다양한 저항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겪은 복음에 대한 무반응/거부 반응을 나눠보세요.

2) 이런 “악하고 음란한”(12:38) 시대에 사람들을 변화시켜 천국으로 인도해야 할 제자의 사명은 분명 “무거운 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짐이 “쉽고 가벼운 짐”인 이유를 다시 한 번 찾아 마음에 새겨 보세요.

6. 천국의 확장: 비유(13장)

- * 1-4장: 예수님의 사역 시작은 긍정/부정적인 요인 모두 필요(세례요한, 요셉, 헤롯, 사탄 등)
- * 5-9장: 말로 가르치는 천국(5-7장)과 행동으로 가르치는 천국(8-9장)
- * 10장: 제자는 주의 부르심과 보내심(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사신으로 천국 확장을 위해 수고하는 자!!!
- * **11-12장: 천국은 세례요한마저 의구심에 빠질 정도로 무작정 환영받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위한 제자들의 사명은 “수고와 무거운 짐”처럼 보이지만, “다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은혜로 쉽고 가볍습니다.**

■ **마 13장**에는 7개의 천국 비유가 차례대로 기록되어 있어, 13장은 ‘**천국 비유 장**’이라 불립니다. 씨 뿌리는 농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가라지 비유, 감추인 보화 비유, 값진 진주 비유, 물고기와 그물 비유.

* **비유**: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10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9, 43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16절).

■ **7개 비유**를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해 보면, 천국의 확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속성**을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씨 뿌리는 농부 비유(1-23절): 길가(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없음), 돌밭(말씀을 잠시 기쁨으로 받되 환난이나 박해로 곧 넘어짐), 가시떨기(말씀을 들었다가 염려와 유혹에 말씀이 막힘), 좋은 땅(“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23절)

가라지 비유(24-30, 36-43절): 좋은 씨, 가라지, 원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42절)

물고기와 그물 비유(47-50절): 좋은 것, 못된 것,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50절)

2) 겨자씨 비유(31-32절): 겨자씨,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나무

누룩 비유(33절): 가루 서 말, 전부 부풀게 한 누룩

3) 감추인 보화 비유(44절): 밭에 감추인 보화, 자기의 소유 전부, 밭

값진 진주 비유(45-46절): 진주, 자기의 소유 전부

-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13:51-52)

■ **고향에서 배척 당하신 예수님(53-58절)**

■ **곰곰이 생각하기/함께 나누기**

1) 천국 비유는 천국-선물을 뿌리치는 자와 받아들이는 자가 늘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천국은 반드시 큰 ‘나무’로 자랄 것이며 큰 ‘반죽’이 된다고 약속하기도 합니다. 이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2) 마지막 두 비유(보화, 진주)는 천국의 가치가 매우 크며, 따라서 그 천국의 시민이라는 신분 역시 어떤 신분보다 높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의 가치와 천국 시민의 가치는 얼마나 높습니까?

7. 천국의 수용과 거부(마 14-17장)

- * 1-4장: 예수님의 사역 시작은 긍정/부정적인 요인 모두 필요(세례요한, 요셉, 헤롯, 사탄 등)
- * 5-9장: 말로 가르치는 천국(5-7장)과 행동으로 가르치는 천국(8-9장)
- * 10장: 제자는 주의 부르심과 보내심(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사신으로 천국 확장을 위해 수고하는 자!
- * 11-12장: 세례요한마저 보인 천국 복음에 대한 거부를 이기는 길은 주님의 쉽고 가벼운 짐을 지는 것입니다.
- * **13장: 7개의 천국 비유는 수용과 거부 현상이 불가피성, 천국의 필연적 확장성, 그 가치를 아는 이들의 절대적 헌신을 이야기 합니다.**

■ 14-17장은 13장의 하나님 비유에서 지적인 수용과 거부 현상이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났음을 다양하게 증언합니다.

1) 14장: 천국의 실현을 목격한 후 과도하게 흥분하거나 오해/두려움에 빠진 이들

-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1-12절): ‘명예와 수치’ 구도 참조
- 오병이어 경험으로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들(13-21절; 예수님은 피신, 22절; cf. 요 6;15)
- 예수님의 예상치 못한 모습(물 위를 걸음)에 두려워하는 제자들(14:22-33)
-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 치유된 ‘모든 병든 자들’(34-36절)

2) 15장: 여전히 금홍보다 제사(규칙)을 중시하는 종교인들과 약자의 적극적 믿음

- 정결 “규칙”을 지키지 않은(농친) 제자들과 “규칙 준수”에 몰입된 종교 지도자들(1-20절)
-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15:18)
- 적극적인 믿음으로 딸의 병을 낫게 한 ‘가나안’ 여인(21-28절)
- * 큰 무리 치유와 사천 명을 먹이심(29-39절)

3) 16장: 악한 세대와 신앙 고백하는 제자들

- 표적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분별력 부재(1-4절), 누룩 같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5-12절)
- 베드로의 신앙 고백/칭찬(13-20절)과 꾸중(21-28절; 첫 번째 수난 예고, 21절)
-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16:24)

4) 17장: 예수님의 변모와 여전히 연약한 제자들(그리스도인)

- 예수님의 변모(신성 계시)와 당황하는 제자 셋(1-13절)
-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믿음이 작은’ 나머지 제자들(14-20절)
- 두 번째 수난 예고(22-23절)와 성전세 논쟁(24-27절, 성전보다 크신 그리스도)

■ 곰곰이 생각하기/함께 나누기

1) 마태복음 14-17장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제는 “안팎으로” 순탄하지 않았음을 보여 줍니다. ‘유대인’ 지배 계층은 본격적으로 거부했고, ‘유대인’ 제자들은 점차 오해와 저항과 무지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과 기적으로 세워가던 시대였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자신을 ‘개’로 여기며 낮추어 14-17장에서 유일하게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은 가나안(이방) 여인(15:28)의 존재는 진흙 속의 진주처럼 빛납니다.

2) 함께 한 지 6개월이 되어가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천국의 모습을 갖추어 가는 상황이 순탄해 보이나요, 아니면 서로의 생각/관점을 조율하느라 진통을 앓고 있진 않습니까?

8. 천국의 속성: 겸손과 용서(마 18장)

- * 1-10장: 하나님이 치밀하게 계획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 복음과 이적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 * 11-12장: 세례요한마저 보인 천국 복음에 대한 저항은 주님의 쉽고 가벼운 짐을 질 때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 * 13장: 천국 비유는 천국의 수용과 거부의 불가피성, 필연적 확장성, 천국에 대한 절대적 헌신을 이야기 합니다.
- * 14-17장: 천국의 수용과 거부가 '안팎으로' 심화/확산되는 과정 속에서도, 이방 여인의 '큰 믿음'을 통해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 18장은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되는 일명 '교회 장'입니다('에클레시아'(교회), 마 16:18; 18:17)
-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1절).

1) 어린 아이(작은 자)와 같이 겸손한 자가 큰 자입니다(1-4절)

-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3-4절)

2) 어린 아이(작은 자)를 영접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5-14절)

-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6-7절)
- 작은 자를 범죄하게 하면(8-9절)
- 작은 자를 업신여기면(10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 *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비유(12-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14절)

3)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죄를 용서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15-35절)

- 용서 원칙(15-20절): 1:1 -> 2~3:1 -> 교회:1 ->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17절)
-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20절)
- 용서 횟수: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22절; 참조, 눅 17:3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 *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18:23-35): 만 달란트(= 6억 데나리온) '빛진 자'와 백 데나리온 '빛진 동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35절)

■ 곰곰이 생각하기/함께 나누기

1) 천국은 겸손한 자, 작은 자를 영접하는 자, 회개한 자를 끝없이 용서하는 자가 크다 인정받는 곳입니다. 이상할 것 하나 없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11:29) 주님이 우리와 같은 이들을 영접하고 용서해 주심으로 시작된 곳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속한 구역은,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을 '큰 자'로 인정하는 천국입니까?

2) 겸손한 성품, 약자 영접, 한없는 용서 이 세 가지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16:24)에 대한 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구체적인 뜻이 해당 본문이나 17장에서 풀이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 ~ 늘 겸손하십니까? 정말 낮은 자를 선호하고 영접하십니까? 죄지은 자를 용서하십니까?

9. 천국에 대한 거부 심화(마 19-22장)

- * 1-10장: 하나님이 치밀하게 계획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 복음과 이적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 * 11-12장: 세례요한마저 보인 천국 복음에 대한 저항은 주님의 쉽고 가벼운 짐을 질 때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 * 13장: 천국 비유는 천국의 수용과 거부의 불가피성, 필연적 확장성, 천국에 대한 절대적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 * 14-17장: 천국 수용과 거부가 '안팎으로' 심화되지만, 이방 여인의 '큰 믿음'은 '겨자씨'와 같은 소망을 줍니다.
- * 18장: 천국은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 작은 자를 영접하는 자, 회개한 자를 끝없이 용서하는 자가 칭찬받는 곳!

◆ 19-22장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에 대한 거부와 저항이 커지고 갈등이 불거지는 다양한 이유를 나열합니다.

(1) 작은 자를 영접(존중/환대)하기가 여전히 어렵다(어린아이, 19:13-15; 맹인, 20:29-34)

(2) 재물이 많다(재물이 많은 청년, 19:16-30)

- 낙타와 바늘귀 비유(23-26절)

-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30절; 20:16)

(3) 사람은 누군가를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고 싶어 한다(20:20-28)

-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27절)

(4)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지식이 오히려 걸림돌/방해가 된다(20:17-19, 세 번째 죽음/부활 예고; 21장, 예루살렘 입성; 22장, 부활/큰 계명/그리스도 논쟁)

- 가장 많은 본문이 연결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천국 복음 수용을 방해하는 뿌리 깊은 문제 중 하나이다.

(5) 먹고 사느라 바빠 천국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혼인잔치 비유, 22:1-14)

- 혼인잔치 초청을 거부하거나 예복 미비

-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14절)

** 위와 같은 이유로 천국을 외면하거나 간과하는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분노가 23-25장에서 쏟아집니다.

■ 곰곰이 생각하기/함께 나누기

1) 예수님의 사역이 깊이를 더해 갈수록, 사람들의 반대와 저항도 깊어만 갔습니다. 온 힘을 다해 공생애 사역을 이어가지만 결실은 점차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각각의 섬김/사역의 현장에서 동일한 상황에 놓인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2)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예수님/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기대가 순기능 대신 오히려 역기능(방해/걸림돌)을 보인 경우는 없었나요? 또한, 위의 이유 중에 자신이나 전도 대상과 상관이 있는 것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10. 거부에 대한 보응: 화와 심판(23-25장)

- * 1-10장: 하나님이 치밀하게 계획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 복음과 이적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 * 11-17장: 그러나 천국 복음에 대한 저항은 예수님의 사역이 전개될 수록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천국은 반드시 확장될 것이며 그 가치를 아는 이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방 여인의 ‘큰 믿음’이 그 증거입니다.
- * 18장: 기어코 확장될 천국은 ‘예수님처럼’ 겸손하며, 작은 자를 영접하고, 회개하면 끝없이 용서하는 곳입니다.
- * 19-22장: 작은 자 영접의 거부감, 섬김 받으려는 본능, 재물의 유혹, 기존의 지식/기대 등이 천국 복음을 더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간과하는 이유입니다.

1. “화 있을진저”(23장):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외치는 예수님의 경고

1) 두 가지 외식(위선, 1-12절)

- 실천이 동반되지 않는 가르침(3-4절), 칭찬/명예를 얻으려는 과시적 행위(5-7절; cf. 6:1)

2)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임할 7개의 ‘화’(13-36절)

- 지금까지 선포된 천국을 거부하며 보이는 종교적 열정과 내면적 “의”를 간과한 외면적 행위(특히 십일조)는 헛되며 오히려 방해물이 될 뿐이다.

2. 천국을 끝까지 거부하는 이들에게 임할 종말(24-25장)

1) 종말의 시작: ‘예루살렘 성전’ 파괴 예언(24:1-22)

2) 인자의 임함(24:23-44):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36절)

- “해가 어두워지며...”(29-31절; cf. 사 34:4; 율 2:31)

3) 종말을 준비하는 이들의 사명(24:42-25:30)

- 무화과/악한 종 비유(“깨어 있으라,” 24:42;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24:44)
- 열 처녀 비유(“깨어 있으라,” 25:13)
- 달란트 비유(“착하고 충성된 종이,” 21,23절; “악하고 게으른 종이,” 26절).

3. 마지막 심판의 판단 기준(25:31-46)

-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공동체 내의 약자) 하나를 돌본 적이 있는지의 여부(40, 45절; cf. 10:42; 18:6, 10, 14).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40절).

■ 곰곰이 생각하기/함께 나누기

마태복음이 말하는 종말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이미’ 이루어졌으며, 인자의 도래(재림)라는 ‘완성’의 단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이미-아직’의 과정). 그 종말의 완성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 오시는가”보다 “어떻게 기다리느냐”입니다. 재림하실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1) 25:31-46 말씀처럼, 다시 오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우리의 삶입니다.

(2) 다만, 주님은 탁월한 능력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됨”(25:21,23)을 칭찬하십니다.